

VIP REPORT



- **전통서비스업: 고부가 주력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
 - OECD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문제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전통서비스업: 고부가 주력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 - OECD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문제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전통서비스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주요 특징	2
3. OECD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문제점	4
4. 정책적 시사점	11
■ HRI 경제 지표	14

1. 개 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주력 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비스업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월초에 「9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던 바와 같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보통신, 물류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생산과 고용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전통서비스업은 정책의 사각 지대에 있다. 전통서비스업이 외환위기 이후 유희 인력의 과도한 유입에 따른 과당 경쟁이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적 방치가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전통서비스업이라고 정의(이하 전통서비스업)를 하고, 우리 전통서비스업의 OECD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통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2. 전통서비스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주요 특징

(국민경제적 위상) 2008년 전통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101조 542억 원으로 **명목 GDP의 9.9%, 서비스업 부가가치 대비 18.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마이너 산업이 아니다. 이는 전체 제조업의 **對 GDP 비중 25.3%**보다는 낮지만, 건설업(6.3%), 정보통신서비스업(3.9%)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08년 전통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567.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357.7만명의 24.1%**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29.6명 및 36.5명으로 전산업 평균 14.3명(서비스업 평균 18.2명, 건설업 17.3명)보다 월등히 높은 고용창출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산업적 특징) 첫째, **소비 변동에 민감하다.** 전통서비스업의 범위에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및 연료 판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 가계 소비와 레저 관련 산업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내 소비의 호·불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가내 노동력 의존도가 높다.** 2006년말 기준으로 전산업의 총근로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무급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이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무급가족·무급종사자 비중은 각각 14.4% 및 11.2%에 달하고 있다.

셋째, **영세 규모 사업체가 많다.** 2006년말 기준 사업체당 근로자수는 전산업이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업체당 근로자수는 각각 5.4명 및 4.2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한 특성을 가진다.

넷째, **여성 인력 비중이 높다.** 2008년 기준 전산업의 취업자 중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이다. 반면 전통서비스업의 여성 인력 비중은 54.0%로 전산업 평균보다 12.1%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OECD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문제점

(낮은 부가가치 유발력) 우리나라 전통서비스업 부가가치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년 명목 기준)은 9.8%로 조사 대상 18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 비중은 14.1%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내수의 역할이 커져 소비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높은 노동집약도) 국내 전통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수의 16.7%(2005년 기준)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중 6위의 높은 고용창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 비중이 9.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높은 취업 비중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 생산성) 2005년 기준 전통서비스업의 명목부가가치를 취업자수로 나누어 본 결과(1인당 부가가치), 한국은 1만 1,867달러로 OECD 평균 4만 8,401달러의 24.5%에 그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간 국민소득과 구매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별 전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대비 전통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을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에서도 한국의 전통서비스업은 38.5%로 OECD 평균 69.9%와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미약한 소득 창출력) 국내 전통서비스업 피용자(employee) 1인당 임금은 1만 1,820달러로 조사대상 18개국중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전통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OECD 평균 3만 3,313달러의 35.5%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1인당 임금 수준의 전산업 대비 비율은 50.3%로 OECD 국가들의 75.4%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영세성) 국내 전통서비스업은 가족중심의 가내 산업 형태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STAN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4%로 OECD 평균치인 18.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성 또는 가족 중심의 근로형태는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고용행태 특성 차이와 관련된 문제로 판단된다.

<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주요 국제경쟁력 지표 >

주요 지표	한국		OECD 평균	
	수치	순위		
부가가치유발력	전산업 대비 명목 부가가치 비중	9.8%	18/18	14.1%
고용창출력	전산업 대비 취업자수 비중	16.7%	6/18	15.4%
생산성	명목부가가치/취업자수	11,867달러	18/18	48,401달러
	전산업 생산성 대비 비율	38.5%	18/18	69.9%
소득창출력	1인당 임금	11,820달러	18/18	33,313달러
	전산업 1인당 임금 대비 비율	50.3%	18/18	75.4%
영세성	총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중	47.4%	2/22	18.2%

자료: EU-KLEMS 및 OECD STAN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

주: 2005년 기준, 단 영세성 부문은 2006년.

4. 정책적 시사점

전통서비스업이 성장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화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통서비스업 내 취약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종의 경우 대형마트의 확장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취약 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재원 배분 결정에 있어서 재래시장과 같은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보다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소규모 전문 특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現 '소호창업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 특화 서비스에 대한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전문특화서비스의 상업화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상표나 디자인 개발,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는 우리 전통서비스업도 일시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예를 들어 일본의 旅館(りょかん, 료칸), 老舗(しにせ, 시니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서비스업이 역사와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 주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브랜드화·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림, 비비큐, 놀부 등의 기업에서와 같이 전통서비스업 내에서도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기업들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지원, 국내외 홍보 대행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숙박업소에 대한 독일의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연구 지원, 일본의 제조업 경영 관리 기법 도입 연구 지원 등의 사례처럼 정부 차원의 업종 연구개발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타 산업과의 연계에 의한 신규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주요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소매 및 음식업 등에 외국인 선호 특화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MICE(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와의 융합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가격 체계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표준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다섯째, 정보화 지원 확대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산업 네트워크 구축률은 소매업(11.2%), 음식숙박(2.9%) 등이 제조업 평균(24.8%)은 물론 서비스업 평균(16.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전통서비스업의 낮은 IT 활용도는 상당수 업체들의 영세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전통서비스업이 소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업종 고유의 저가 IT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개 요

○ (분석 배경) 경제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무게중심이 서비스업 부문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내 저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주력 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비스업 부문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보통신, 물류,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듯한 상황임

○ (분석 방법 및 목적) 우리나라 전통서비스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봄

- 본 보고서에서는 가정 협의적인 개념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전통서비스업이라고 정의(이하 전통서비스업) 함¹⁾
- 이후 EU-KLEMS와 OECD STAN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국제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1) 전통(적)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①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제외한 업종(舊 재정경제부 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7. 7.), ②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 ③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 부동산, ④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 부동산, 이미용업 등 다양한 정의가 존재함.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제약상 가장 협의적인 개념인 도소매·음식숙박업에만 한정하였음.

2. 전통서비스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주요 특징

○ (국민경제적 위상) 2008년 기준 명목 GDP의 9.9%, 고용의 24.1%

- 2008년 기준 전통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101조 542억원으로 명목 GDP의 9.9%, 서비스업 부가가치 대비 18.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의 대 GDP 비중 25.3%보다는 낮지만, 건설업(6.3%), 정보통신업(3.9%)보다는 높은 수준임
- 2008년 통계청 KOSIS 기준 전통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567.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357.7만명의 24.1%나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29.6명 및 36.5명으로 전산업 평균 14.3명(서비스업 평균 18.2명, 건설업 17.3명)보다 월등히 높은 고용창출력을 가지고 있음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2006년) >

(단위 : 명/10억원, %)

	2000년	2005년	2006년
농림어업	62.9	51.1	50.2
광업	9.8	10.4	10.1
제조업	13.2	10.1	9.6
전력가스수도	5.3	3.6	3.5
건설업	17.0	16.6	17.3
서비스	21.5	18.4	18.2
도소매	40.0	30.4	29.6
음식숙박	43.0	37.8	36.5
전산업	18.1	14.7	14.3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전통서비스업의 주요 특징) 소비 산업, 가내 산업, 영세 산업, 여성 산업

- 소비 변동에 민감한 산업 : 전통서비스업의 범위에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연료 판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 가계 소비와 레저 관련 산업들이 대부분임

- 따라서 국내 가계의 구매력과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임
- 가내 노동력 이용도가 높은 산업 : 2006년말 기준으로 총근로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무급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산업이 7.5%를 기록한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각각 14.4% 및 11.2%를 기록
- 영세 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 : 2006년말 기준 사업체당 근로자수는 전산업이 8.5명인데 반하여,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각각 5.4명 및 4.2명에 불과
 - 전규모 사업체수 대비 1~4인 규모 사업체수 비중도 전산업은 64.0%에 그친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각각 73.0% 및 78.6%에 이릅니다

< 전통서비스업의 주요 지표(2006년말 기준) >

	전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체당 근로자수	8.5명	5.4명	4.2명
무급가족종사자 및 무급종사자수 / 총근로자수	7.5%	14.4%	11.2%
1~4인 규모사업체수 / 전규모 사업체수	64.0%	73.0%	78.6%

자료 : 노동통계연감 2008 사업체노동실태.

주 : 전규모 기준.

-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산업 : 2008년 기준 전산업의 취업자 중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인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여성 인력 비중은 54.0%로 12.1%p가 높은 상황

< 총인력 대비 여성 인력 비중 >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산업	41.5%	41.7%	41.9%	41.9%	41.9%
도소매·음식숙박업	54.9%	54.7%	54.4%	54.1%	54.0%

자료 : 통계청.

3. OECD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문제점

○ (낮은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 비중 9.8%, 18개국중 최하위

- 분석 방법 : EU-KLEMS 자료상의 2005년 기준 18개국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명목 부가가치가 전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
 - 이용 대상 변수 : VA(Gross value added at current basic prices)
 - 분석 대상 산업 : 전산업(TOT, TOTAL INDUSTRIES)
 도소매업(G, WHOLESALE AND RETAIL TRADE)
 음식숙박업(H, HOTELS AND RESTAURANTS)
- 분석 결과 : 우리나라 전통서비스업 부가가치가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년 명목 기준)은 9.8%로 조사 대상 18개국중 최하위를 기록(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 비중은 14.1%)
 - 이는 선진국일수록 내수의 역할이 커져 소비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전산업 대비 전통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 (2005년 기준) >

	도소매업/전산업	음식숙박업/전산업	전통서비스업/전산업
네덜란드	12.8%	1.8%	14.6%
덴 마 크	11.9%	1.5%	13.4%
독 일	10.3%	1.6%	12.0%
룩셈부르크	9.4%	2.0%	11.4%
미 국	10.9%	2.2%	13.2%
벨 기 에	13.1%	1.6%	14.7%
스 웨 덴	11.2%	1.5%	12.7%
스 페 인	10.8%	7.7%	18.4%
아일랜드	9.9%	2.2%	12.1%
영 국	12.0%	3.0%	15.0%
오스트리아	12.8%	4.6%	17.4%
이탈리아	11.9%	3.8%	15.6%
일 본	13.6%	3.0%	16.6%
포르투갈	13.5%	4.4%	17.9%

전통서비스업: 고부가 주력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

프랑스	10.5%	2.3%	12.8%
핀란드	10.7%	1.5%	12.2%
한국	7.2%	2.6%	9.8%
호주	11.3%	2.2%	13.5%
18개국 평균	11.3%	2.7%	14.1%

자료: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March 2008 Release.

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각각 NACE revision 1 분류상의 'G(WHOLESALE AND RETAIL TRADE)' 부문과 'H(HOTELS AND RESTAURANTS)' 부문임²⁾

○ (높은 고용창출력) 취업자 비중 16.7%, 18개국중 6위

- 분석 방법 : EU-KLEMS 자료상의 2005년 기준 18개국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가 전산업의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
 - 이용 대상 변수 : EMP(Number of persons engaged)
 - 분석 대상 산업 : 전산업(TOT, TOTAL INDUSTRIES)
 도소매업(G, WHOLESALE AND RETAIL TRADE)
 음식숙박업(H, HOTELS AND RESTAURANTS)
- 분석 결과 : 국내 전통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수의 16.7% (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OECD 국가들중 6위의 높은 고용창출력)
 -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우리 전통서비스업이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노동의존도가 높아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전산업 대비 전통서비스업의 취업자수 비중 (2005년 기준) >

	도소매업/전산업	음식숙박업/전산업	전통서비스업/전산업
네덜란드	16.6%	0.1%	16.7%
덴마크	15.7%	0.0%	15.8%
독일	15.2%	0.1%	15.3%
룩셈부르크	13.5%	0.0%	13.6%

2) NACE는 'Nomenclature général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es Communautés européennes'의 약자로 '유럽공동체 내 경제활동의 일반산업분류(General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European Communities)'를 의미하며,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ision 3와 유사함.

OECD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문제점

미 국	17.0%	0.1%	17.0%
벨 기 에	14.2%	0.0%	14.3%
스 웨 덴	12.4%	0.0%	12.4%
스 페 인	14.5%	0.1%	14.6%
아일랜드	13.0%	0.1%	13.1%
영 국	17.0%	0.1%	17.1%
오스트리아	14.7%	0.1%	14.8%
이탈리아	14.7%	0.1%	14.7%
일 본	17.4%	0.1%	17.5%
포르투갈	17.1%	0.2%	17.3%
프 랑 스	13.6%	0.0%	13.6%
핀 란 드	12.8%	0.0%	12.8%
한 국	16.4%	0.3%	16.7%
호 주	19.3%	0.1%	19.3%
18개국 평균	15.3%	0.1%	15.4%

자료: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March 2008 Release.

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각각 NACE revision 1 분류상의 'G(WHOLESALE AND RETAIL TRADE)' 부문과 'H(HOTELS AND RESTAURANTS)' 부문임

○ (低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11,867달러**, 18개국중 최하위

- 분석 방법 : EU-KLEMS 자료상의 2005년 기준 18개국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명목부가가치를 취업자수로 나눈 1인당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OECD 국가간 절대적 소득이나 구매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산업 생산성 대비 비율을 계산함

· 이용 대상 변수 : VA(Gross value added at current basic prices)

EMP(Number of persons engaged)

· 분석 대상 산업 : 전산업(TOT, TOTAL INDUSTRIES)

도소매업(G, WHOLESALE AND RETAIL TRADE)

음식숙박업(H, HOTELS AND RESTAURANTS)

· OECD 국가들간 상이한 통화는 2005년 연평균 대미 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화 표시로 통일함

- 분석 결과 : 2005년 기준 전통서비스업의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명목부

전통서비스업: 고부가 주력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

가가치를 취업자수로 나누어 본 결과 (1인당 부가가치), 한국은 1만 1,867달러로 OECD 평균 4만 8,401달러의 24.5%에 그치고 있음

- 또한 OECD 국가간 평균적인 국민소득이나 구매력의 차이를 최대한 반영해 주기 위하여 각국별 전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대비 전통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을 도출한 결과,
- 한국의 전통서비스업은 38.5%로 OECD 평균인 69.9%와 큰 격차를 나타냄

< 1인당 생산성 (명목부가가치/취업자수, 2005년 기준) >

(단위: 미 달러)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통서비스업	전산업	전통서비스업/전산업
네덜란드	52,522	34,844	49,366	68,299	72.3%
덴 마 크	60,029	35,365	55,774	79,142	70.5%
독 일	44,193	23,196	39,372	64,893	60.7%
룩셈부르크	75,644	46,587	68,256	108,556	62.9%
미 국	52,620	26,151	44,925	81,561	55.1%
벨 기 에	72,840	35,870	65,492	79,207	82.7%
스 웨 덴	66,379	38,796	61,288	73,406	83.5%
스 페 인	39,064	60,741	45,874	52,501	87.4%
아일랜드	69,795	31,238	57,118	91,609	62.3%
영 국	47,306	32,521	43,403	67,159	64.6%
오스트리아	56,943	52,374	55,659	65,489	85.0%
이탈리아	52,841	53,075	52,898	65,337	81.0%
일 본	55,085	28,292	47,076	70,311	67.0%
포르투갈	24,650	23,701	24,410	31,254	78.1%
프 랑 스	59,137	47,265	56,582	76,342	74.1%
핀 란 드	59,302	33,228	54,121	70,870	76.4%
한 국	13,467	8,952	11,867	30,849	38.5%
호 주	39,347	31,300	37,747	67,283	56.1%
18개국 평균	52,287	35,750	48,401	69,115	69.9%

자료: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March 2008 Release.

- 주: 1)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각각 NACE revision 1 분류상의 'G(WHOLESALE AND RETAIL TRADE)' 부문과 'H(HOTELS AND RESTAURANTS)' 부문임
 2) 명목부가가치는 자국통화를 2005년 對美 달러 연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환산.

○ (미약한 소득 창출력) 1인당 임금 11,820달러, 18개국중 최하위

- 분석 방법 : EU-KLEMS 자료상의 2005년 기준 18개국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피용자보수를 피용자수로 나눈 1인당 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OECD 국가간 절대적 소득이나 구매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산업 1인당 임금 대비 비율을 계산함
 - 이용 대상 변수 : EMPE(Number of employees)
COMP(Compensation of employees)
 - 분석 대상 산업 : 전산업(TOT, TOTAL INDUSTRIES)
도소매업(G, WHOLESALE AND RETAIL TRADE)
음식숙박업(H, HOTELS AND RESTAURANTS)
 - OECD 국가들간 상이한 통화는 2005년 연평균 대미 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화 표시로 통일함
- 분석 결과 : 우리나라 전통서비스업 피용자(employee) 1인당 임금은 연간 1만 1,820달러로 조사대상 18개국중 역시 최하위를 기록
 - 우리 전통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OECD 평균 3만 3,313달러의 35.5% 수준에 불과
 - 앞에서의 생산성 분석에서와 같이 평균 국민소득과 구매력을 반영해 주기 위하여 전산업의 1인당 임금 수준 대비 비율을 계산한 결과,
 - 한국 전통서비스업 임금 수준은 전산업 대비 50.3%로 OECD 국가들의 75.4%와 큰 격차를 보임

< 피용자 1인당 임금 (2005년 기준) >

(단위: 미 달러)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통서비스업	전산업	전통서비스업/전산업
네덜란드	35,070	21,567	32,794	44,535	73.6%
덴 마 크	46,944	28,624	43,863	52,896	82.9%
독 일	33,941	19,342	30,774	40,793	75.4%
룩셈부르크	41,952	32,993	39,828	64,212	62.0%
미 국	40,078	19,133	33,875	49,715	68.1%
벨 기 에	48,599	28,162	44,921	53,215	84.4%

스웨덴	48,578	32,554	45,738	48,869	93.6%
스페인	26,537	32,842	28,504	32,293	88.3%
아일랜드	38,245	25,578	34,099	50,973	66.9%
영국	34,198	26,677	32,200	50,257	64.1%
오스트리아	34,939	32,701	34,361	44,511	77.2%
이탈리아	34,579	38,318	35,632	39,385	90.5%
일본	32,961	17,390	28,537	39,994	71.4%
포르투갈	18,241	12,923	16,887	22,175	76.2%
프랑스	43,356	37,948	42,246	49,275	85.7%
핀란드	38,304	30,994	36,931	45,335	81.5%
한국	11,920	11,649	11,820	23,514	50.3%
호주	28,095	20,759	26,614	40,489	65.7%
18개국 평균	35,363	26,120	33,313	44,024	75.4%

자료: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March 2008 Release.

- 주: 1)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각각 NACE revision 1 분류상의 'G(WHOLESALE AND RETAIL TRADE)' 부문과 'H(HOTELS AND RESTAURANTS)' 부문임
 2) 피용자 1인당 임금은 피용자보수를 미 달러로 환산한 이후 피용자수로 나눈 것임.

○ 영세성 (가족중심의 경영)

- 분석 방법 : OECD STAN 자료상의 2006년 기준 22개국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수(self-employed)³⁾를 총취업자수로 나눈 값을 계산하고, 동시에 OECD 국가간 고용 행태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산을 함

- 이용 대상 변수 : EMPN(Number of persons engaged, total employment)
 SELF(Self-employed)
- 분석 대상 산업 : 전산업(CITOTAL, TOTAL INDUSTRIES)
 도소매·음식숙박업(C50T55, WHOLESALE AND RETAIL TRADE - RESTAURANTS AND HOTELS)

- 분석 결과 : OECD STAN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4%로 OECD 평균치인 18.2%를 크게 상회

3) OECD STAN 데이터상의 SELF(Self-employed)는 사전적인 의미인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s)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employers), 무급가족종사자까지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로 해석됨.

OECD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전통서비스업의 문제점

- 한편 조사 대상 22개국중에서 이러한 높은 비중을 보인 국가가 한국(47.4%) 이외에도 그리스(47.6%), 이탈리아(42.7%)가 있음
- 한국을 포함한 이들 3국의 전산업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각각 32.8%, 34.9%, 24.4%로 역시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영세성 또는 가족 중심의 근로 형태는 국가적 고용 행태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됨

< 비임금근로자 비중 (2006년 기준) >

2006	전통서비스업(A)	전산업(B)	격차(A-B)
오스트리아	14.8%	16.7%	-1.9%p
벨기에	21.5%	16.2%	5.3%p
캐나다	5.0%	9.2%	-4.2%p
체코	27.5%	18.2%	9.3%p
덴마크	7.4%	6.2%	1.2%p
핀란드	10.9%	11.8%	-0.9%p
프랑스	12.2%	8.9%	3.2%p
독일	14.3%	11.2%	3.0%p
그리스	47.6%	34.9%	12.8%p
헝가리	18.7%	12.7%	5.9%p
아이슬란드	14.9%	16.1%	-1.2%p
아일랜드	12.8%	16.4%	-3.6%p
이탈리아	42.7%	24.4%	18.3%p
한국	47.4%	32.8%	14.5%p
룩셈부르크	10.8%	6.2%	4.5%p
네덜란드	14.0%	14.1%	-0.1%p
노르웨이	5.5%	7.0%	-1.4%p
포르투갈	15.3%	18.6%	-3.3%p
슬로바키아	23.4%	12.9%	10.5%p
스페인	22.0%	14.2%	7.9%p
영국	8.7%	14.0%	-5.4%p
미국	4.1%	6.9%	-2.7%p
평균	18.2%	15.0%	3.3%p

자료: OECD STAN.

- 주: 1)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STAN상 C50T55 WHOLESALE AND RETAIL TRADE - RESTAURANTS AND HOTELS 부문임
 2)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

4. 정책적 시사점

○ 전통서비스업 내 취약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도소매업종의 경우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취약 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자원 배분 결정에 있어서 재래시장과 같은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보다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소규모 전문 특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現 '소호창업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 특화 서비스에 대한 발굴에 주력해야 함
 - 또한 전문특화서비스의 상업화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상표나 디자인 개발,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제는 우리 전통서비스업도 일시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예를 들어 일본의 旅館(りょかん, 료칸), 老舗(しにせ, 시니세)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서비스업이 역사와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함

○ 주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브랜드화·연구개발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하림, 비비큐, 놀부 등에서의와 같이 전통서비스업 내에서도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충분히 가능함

4) 일본의 旅館(りょかん, 료칸)이란 일본식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숙박시설을 지칭하며, 老舗(しにせ, 시니세)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점포를 의미함. 이 두 업종은 문화·역사 관광과 결합되어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기업들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지원, 국내외 홍보 대행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됨

- 한편 숙박업소에 대한 독일의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연구 지원, 일본의 제조업 경영 관리 기법 도입 연구 지원 등의 사례처럼 정부 차원의 업종 연구개발 강화 노력도 필요함

- 타 산업과의 연계·융합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 노력이 요구됨

- 음식·숙박업의 경우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주요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소매 및 음식업 등에 외국인 선호 특화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특히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MICE⁵⁾와의 산업간 융합과 연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가격 체계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정보화 지원 확대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산업 네트워크 구축률은 소매업(11.2%), 음식숙박(2.9%) 등이 제조업 평균(24.8%)은 물론 서비스업 평균(16.3%)에도 못 미침

- 이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전통서비스업이 소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업종 고유의 저가 IT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3669-4030)

5) MICE: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의 약자.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	2008(E)				2009 수정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4.7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4.5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7.6	1.0	4.7	-14.0	-2.0	-11.5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68	-79	15	-133	66
		수출 (억 \$)	3,715	2140	1,152	931	4,223	3613
		증가율 (%)	(14.1)	(20.4)	(27.3)	(-9.9)	(13.6)	(-14.4)
		수입 (억 \$)	3,568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15.3)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2.8	
	실업률 (%)	3.2	3.2				4.0	
	국제유가(Dubai, \$)	68	94.29				55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36				1,250	